

##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Andy Warhol Look을 중심으로-

양 희 영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Eclectic Trend Expressed in the late 20th Century's Fashion -with the main point of Andy Warhol's Look-

He-Young, Yang · Sook-Hi,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1999. 11. 23 접수)

#### Abstract

A study analyzes the eclectic trend shown in Andy Warhol look to explain the pluralistic aspect which is expressed in the late 20th century's fashion. Eclecticism is a trial to dismantle the barriers between pure art and popular art, high culture and low culture. This pursues harmonious accommodation and coexistence of all areas without being confined in the conventional lofty taste or high art.

This thesis studies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the eclectic trend by classifying this trend into sex, culture, mass media and fashion around the Andy Warhol look.

The sexual eclectic trend in Warhol look is bisexual one shown in clubland and the world of modeling and supplies fashion with abundant expression and ambiguity.

Warhol established cultural eclecticism by compounding high cultural factors and low cultural factors, broke up the boundary between street fashion and high fashion and escaped from the fixed idea on materials and design.

Also he generalized and democratized specialty or nobility conventional paintings had possessed through introducing repetition and mediocrity and fully utilized every kind of mass media, Hollywood movie stars and daily necessities in producing works. Andy Warhol who asserted 'Business Art' that was the mixed form of artistry and commercialism had creative and futuristic taste and proposed the direction to develop current fashion and art where the concept of economy is importantly brought into relief.

**Key words:** eclecticism, sexual eclectic trend, cultural eclecticism, business art:  
절충주의, 성적 절충주의적 경향, 문화적 절충주의, 비즈니스 아트

#### I. 서론

20세기 후반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지배하며 이

전까지의 문화, 사고, 감정, 창작원리 등의 범주와 장르를 혼합하는 절충주의 양식은 고급문화와 저급 문화, 고전주의와 모더니즘,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모색한 것으로 고급에

술, 고상한 취미, 고전주의 등의 기존개념을 탈피하여 모든 영역간의 조화로운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사이의 경계를 와해하는 미학적 대중주의를 주도한 절충주의는 일상성, 평범성, 대중성, 모호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사진 기계기술의 발달과 테크놀러지의 진보로 기존 회화에 대중성과 반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미지의 혼합, 장르의 절충과 혼합, 자연과 기술과의 융합, 타 예술 장르와의 절충을 통해 다양성과 모호성을 제공한다. 대중매체와 순수예술의 절충은 상업성을 정당화시켰으며, 더욱이 상업과 예술의 절충형태를 통해 상업성에 대한 맹목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와해시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술이 가진 영원성을 포기한 최초의 예술사조인 팝아트의 상업적이고 절충적인 경향은 물질만능, 퇴폐, 타락이라는 부정적인 관점보다 보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20세기 후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적절한 사조라는 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팝아티스트이면서 현대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앤디워홀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경향과, 대중예술의 절충주의적 형태를 구사한 앤디 워홀 룩(Andy Warhol Look)을 바탕으로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절충주의의 개념과 일반론 및 대중매체에 나타난 절충주의의 특징을 살펴본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을 성, 문화, 지역, 역사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3. 앤디 워홀 룩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특징을 성, 문화, 대중매체와 패션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절충주의

### 1. 절충주의의 개념

절충주의라는 단어는 포스트모던한 사회 이전에도 종종 사용되어 왔던 용어였으나, 이것이 전면으

로 부각되어 그 특징이 두드러져 나타나게 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이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관과 이미지에 대한 탈피 및 대담한 수용으로 절대성, 일원론, 독단주의 대신 상대성, 다원론, 관용주의로 표현된다.

범주와 장르를 혼합하는 절충주의 양식은 19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의 전 분야에서 정식화되었다. 이것은 고급예술, 고상한 취미, 고전주의 등의 견고한 개념을 공격하고 있으며<sup>1)</sup>, 영화, 음악, 미술, 건축 등 고급예술의 여러 분야가 함께 뒤섞여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즉 포스트모던 문화 양식에서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의 경계, 장르간의 경계가 와해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장르, 형식간의 절충주의나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sup>2)</sup>.

절충주의는  $A+B=C$ 로 그 성격이나 특징이 변모되는 것과, 혼합된 것들이 단순히 섞여 나타나는 것으로 양분될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양상 자체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가 재생산되어진다. 즉, 외적으로는  $A+B=A, B$ 의 양상을 보이나 그 내용이나 이미지는  $A+B=C$ 라는 공식이 적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2. 절충주의의 일반적 고찰

절충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신학과 철학분야이며, 이들 분야에서 거론된 절충주의의 개념은 19세기 미술, 건축 분야로부터 20세기 예술과 모든 생활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절충주의는 본래 서로 대립되는 테제를 새로 발견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조정, 융합시키는 방법으로 해석되었으며, 이질적인 체계의 구성물인 여러 테제 가운데 융화시킬 수 없는 것은 무시하고 적절한 것만을 어떤 확정적 기술 없이 선택하여 병렬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의미로는 혼합주의(synthetism)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충주의는 호의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미술 양식에 있어서 절충주의는 독자적인 양식의 창조가 아니라 기존의 여러 양식들의 장점을 취합하는 경향으로, 19세기 중엽의 고전주의(Classicism)와 낭만주의(Romanticism)의 타협을 도모한 절충주의 양식과, 프랑스의 어거스트 잉그레(Jean Auguste Dominique Ingres)의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와 유진 라크르와(Ferdinand Victor Eugene de Lacroix)의 낭만주의의 조절 및 절충에 의한 회화 양식을 들 수 있다. 20세기에 와서는 여러 사조 중 각각의 요소들간의 부분적인 절충이 보여지다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속에서 커다란 특징으로 분류, 파악되기 시작했다.

건축에서는 16세기에는 매너리즘(Mannerism) 양식으로 나타나며, 19세기에는 에클레티시즘(Eclecticism), 20세기 후반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형태로 절충주의가 나타난다<sup>3)</sup>.

### 3. 대중매체에 나타난 절충주의

급속한 기술의 진보와 테크놀러지의 발달에 힘입어 복제 기술, 비디오, 컴퓨터, 광고, 영화, 사진 등의 대중 매체와 미술과의 만남도 더욱 더 확대되어 갔다. 기계복제 수단의 진척, 하이테크 뉴미디어의 정보전달 용량의 확대, 컴퓨터 단말기, TV 수상기 등이 현대의 순발력과 다양성, 위기적인 모습으로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라는 새로운 경향을 형성하였다<sup>4)</sup>. 여러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기존의 회화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회화가 지닌 아우라(aura)를 붕괴하여 대중과의 화해를 모색하였고, 창작기법과 소재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대중적 요소를 도입하게 하였다. 회화의 양식과 기법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은 사진기계기술의 발달과 테크놀러지의 진보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기존의 회화에 평범성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절충주의적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된 영역은 대중 영상매체인 영화와 TV광고, 비디오 등인데, 이것은 이들이 제시하는 영상언어가 문자와는 다르게 정보보다는 새로운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창출하고 '미학적 대중주의'를 생성하는 강점 때문이다<sup>5)</sup>.

영화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특징은 양식과 장르의

혼합으로 이것은 해석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각각의 영상 이미지들이 만들어 내는 모호성을 제공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는 산업사회, 대중소비사회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대중성, 상업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절충주의적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인기를 끌었던 시대별 영화 장르들이 한꺼번에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하고, 한 영화에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특정 장르라 지적하기 어려운 혼성(hybrid)장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sup>6)</sup>. 과거 영화 장르들의 향수에 의해 등장한 장르의 절충주의적 경향은 다양한 합성을 통해 기존의 원본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창조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테크놀러지의 진보로 20세기말의 광고문화는 대중 문화의 일부로서 절충주의적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TV광고는 좌절과 만족, 막연한 보상을 포함한 일상경험의 실제 짜임새와 고양된 짜임새, 이상적인 짜임새를 이용하고 있으며 잡종적, 복합적이고 절충적인 방법과 구성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sup>7)</sup>. 1990년대 들어 신세대를 겨냥한 광고들은 제품을 팔지 않고 분위기나 이미지를 파는 것이 특징으로<sup>8)</sup> 이미지의 혼합, 남녀성의 교체, 여러 장르의 혼합 및 절충,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의 도입, 타 예술장르와의 절충 등으로 다양한 영상효과를 제시한다.

광고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은 기존의 회화나 사진 작품을 응용해 이들이 지닌 특수 이미지를 파괴하여 평범성과 상업성을 제공했으며,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적 영상의 효과는 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에 대한 모호성을 드러내었다.

### III.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다국적 자본은 이윤을 위해 가속적으로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일반 패션은 절충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하위문화 요소들이 캐워크(Catwalk)상의 일부로 진출하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즉 패션에서 절충주의는 비주류인 다양한 하위문화 스타일

과 주류인 일반 스타일이 혼합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물개성적인 스타일을 거부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sup>9)</sup>.

### 1. 성

1960년대 이후 젊은 세대들은 남녀 모두가 성을 초월한 무한한 자유를 성취하고자 '유니섹스'(Uni-sex)라는 새로운 패션경향을 대두시켰다. 1970년대 이후 남녀의 성은 '성에 따른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닌 '개인에 따른 차이'를 갖는다는 양성주의적 시각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는 패션에 있어서 계급, 연령, 시대, 성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크게 부각시켰는데 유니섹스 룩(Unisex Look),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 뉴 웨이브 패션(New Wave Fashion)의 형태로 현재까지 수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다각도로 변화된 상호 성의 이미지 혼합은 성의 양면가치를 제시하며 상식을 초월한 개성 위주의 패션문화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성의 양면가치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를 혼합하여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3의 성'으로 표현되고 있다<sup>10)</sup>. 20세기 후반의 패션에서는 남성, 여성이라는 양분화 현상보다는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을 혼합하거나, 각각의 요소들을 반대 성에 차용함으로써 성적인 차별을 중시했던 기존의 패션관념을 일탈하고자 했다. 현대 패션은 남녀 패션의 아이템과 메이크업의 혼용으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의 변화를 즐긴다.

### 2. 문화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테크놀리지의 진보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취향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존의 하이패션이 지녔던 테두리내에서는 이러한 욕구와 필요의 충족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대중적인 요소와 거리패션의 수용을 절감하고 이러한 모티브들이 하이패션과 더불어 패션을 주도하고 유행을 선도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절충주의는 하위문화적 요소들을 수용하도록 선동하였으나 그 영향

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1970년대에는 거리패션이 본격적으로 하위문화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여러 팝 뮤직 가수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0년대는 다양한 욕구와 요구가 창출되어 패션상품의 질적인 추구하고 용도의 다양화, 개성화가 요구되었다. 이것은 다시 캐주얼상의 다양화를 요구하게 되어 하위문화 요소가 캐주얼상에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는 거리패션을 주도하던 펑크(punk)의 요소들이 과감하게 하이패션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거리패션상에서 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하이패션과 절충되어 대중에게 유행되었다. 1990년대에 나타난 팝, 펑크 스타일을 비롯한 거리패션은 세련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룬지(Grunge) 스타일과, 리믹스(Remix) 스타일로 나타났다.

하위문화 요소의 도입으로 인해 여러 아이템과 소재의 절충현상이나 속옷의 겹옷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고가의 고급 소재만이 그 대상이 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가격이 저렴한 소재나 일상생활 용품이 패션의 재료로 활용되었다.

하위문화 패션은 기존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보다 다원화된 방식으로 패션에 있어서 즐거움과 유희성을 제공한다. 이들은 기존의 패션이 지녔던 복잡한 개념들을 파괴하고, 개인들의 개성과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 3. 지역

1980년대 중반부터 패션경향에서 두드러진 민속풍과 원시적 특성은 비서양지역을 동경하는 이국취향(Exoticism)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접촉했을 때 동질화되거나 융합되는 문화변용과 연관된다.

1980년대 후반 대두된 이콜로지(Ecology)에 대한 사고는 건강한 지구환경의 보존이라는 전세계적인 공통의 이슈로서 환경에 적합한 기술의 이용이라는 자연과 기술융화의 테크닉을 탄생시켰다. 이콜로지는 자연에 대한 동경과 회귀본능, 인간성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sup>11)</sup> 이는 주로 상징, 은유, 풀라쥬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콜로지는 문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아프리카의 감각을 상징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표방하였고, 이들의 민속의상이나 장신구,

바디 페인팅이나 문신, 상흔 등은 현대 서양패션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주류와 비주류의 절충을 드러낸다.

20세기 후반 서양패션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증동,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에스닉룩(Ethnic Look)이 후기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패션 주제로 서양 패션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 4. 역사

패션의 역사적 절충주의 경향은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의 아이টে를 코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안티 스탠다드 패션(Anti-standard fashion)'에서도 드러난다.

1980년대 이전의 패션은 과거양식의 패러디로 양식의 중복성, 즉 절충주의를 뜻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미 사용된 양식의 부분인용이거나 어떤 형식을 차용하면서 약간의 내용적 변용만 한 것이었다. 1980년대는 과거의 여러 요소들이 재조합되어 새로운 발상의 디자인들이 발표되었으나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패션 경향은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시각적 추세를 가지고, 단순히 과거의 모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과거를 이용,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역사주의'와 '복고풍'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즉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오늘날의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재수정하는 과거와 현재의 절충인 복고풍이 유행되었고, 이것은 '레트로 룩(Retro-Look)' 혹은 '패션 리바이벌(Fashion Revival)'로 명명되었다. 복고풍은 옛것에 대한 향수로 현대인간의 감정과 정서,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되어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된 것으로, 이것은 시간차를 극복한 '시대성의 크로스 오버(crossover)' 경향을 나타내었다<sup>13)</sup>.

원시주의(Primitive) 패션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히 발표되었다. 생명, 상징, 이미지로 특징 지워지는 19세기 원시예술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면을 끊임없이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또한 이콜로지화 깊은 연관을 갖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

으켰다.

#### IV. Andy Warhol Look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팝아트의 선두주자로서 상업성과 예술성의 절충 형태인 '비즈니스 아트(Business Art)'를 주장한 앤디 워홀(Andy Warhol)은 '경제(economy)'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대예술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해체, 이들의 요소들을 혼합, 병치하여 풍부성과 애매성을 강조하였고, 특수성과 보편성의 개념을 전도시켰다. 또한 회화, 영화, 비디오, 패션 등의 대중매체와 사회적 상황을 대치시켜 예술에 있어서의 일상성과 대중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하위문화 스타일을 선동해 이것을 일부 하이패션의 요소로 수용한 패션선구자이며, 문화의 영역에 경제개념을 도입한 비즈니스 아티스트이다.

워홀은 팝아티스트로 통상 명명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활동들은 팝아트를 그의 스타일 영역안에 포함시켜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가 창조한 상업적이고 대중적이며 다중복합적인 작품이나 스타일들을 새로운 '룩'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지금은 하나의 독자적인 '워홀 룩(Warhol Look)'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4)</sup>.

Fransis와 King은 시대와 범주에 대한 편견없이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워홀의 스타일을 '워홀 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워홀의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성향이나 취향까지도 포함시켜서 '워홀 룩'으로 정의내렸다.

워홀 룩(Warhol Look)은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형성한 룩(Look)의 의미와는 달리 특정 스타일을 지향하지 않고 대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보여주는 글래머러스한(glamorous) 스타일<sup>15)</sup>은 할리우드(Holly-Wood) 영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시대와 범주의 구분없이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워홀 룩은 문화적 대중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이것은 모든 문화영역간의 상호 화해로운 이해와 공존을 지향한다.

1. 성

워홀 특에 나타난 성적 절충주의적 경향은 남녀성을 통합시킨 앤드로지너스적인 경향이다. 이런 앤드로지너스적 경향은 표현의 풍부성과 모호성을 제공한다. 워홀은 인간의 신체중 그 동안 노출이 터부시 되어왔던 '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이지 여성, 남성이라는 특징적인 분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 성기의 은유적 표현방법으로 구두를 선택했는데, 힘이 가진 유연한 곡선미는 여체의 곡선을 따랐고 구두의 파진 홈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였다. 이것은 성적 대상이 되는 대용물을 패션의 일부분인 구두에서 찾으려고 한 페티시즘의 표현이다<sup>16)</sup>. 그가 1950년대 제작한 '하이힐 슈즈(High-Heeled Shoe)'는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구두를 배치시켜 발과 신발에 대한 온갖 종류의 페티쉬와 도상이 혼합된 관념적인 구두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1960년대에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 바나나를 이용하여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그림 1]은 1966년 바나나를 이용해 제작한 드레스이다. 이것은 여성의 드레스에 남성적 상징인 바나나를 부각시켜 디자인한 것으로, 웨스트우드의 코드피스 사용[그림 2]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남성복의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림 1] Andy Warhol, Banana Dress, 1966, [The Warhol Look], p. 162



[그림 2] Vivienne Westwood, [패션 디자인 발상트레이닝], p. 110



[그림 3] Andy Warhol, Ladies and Gentlemen, [The Warhol Look], 1975, p. 202

성적 절충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여성스러운 남성의 이미지에 대한 흥미로 여장, 게이, 동성애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워홀은 메이크업과 가발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변용된 자화상'의 드러내었는데, 그는 이를 통해 외적인 조작으로 얼마든지 변용가능한 성적인 모호성을 나타내었다. 여장에 대한 그의 관심은 뉴욕에서 만났던 흑인과 히스패닉 드래그 퀸(Hispanic drag queen)의 초상화를 이용해 남성 사진과 여성 그림을 합성시켜 양성적 의미의 제목을 붙인 '레이디 앤 젠틀맨(Ladies and Gentlemen)'의 작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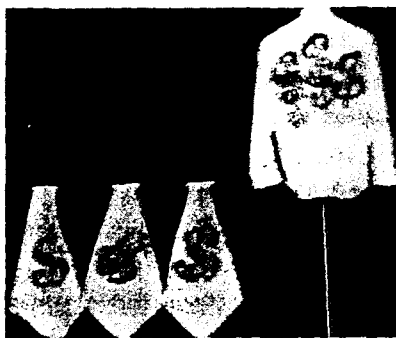
을 통해 나타난다(그림 3).

위홀 또한 1960년대 반문화가 형성한 성적 고정관념의 탈피에 동조해 유니섹스 룩인 진과 티셔츠를 즐겨 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적, 문화적 절충 형태를 동시에 이끌어 내었다.

## 2. 문화

위홀 룩은 고급과 저급이라는 기존의 선형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여 비편향적 예술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하층(drop city) 미학을 반향시켰다. 뉴 웨이브 패션으로 나타난 하이패션과 거리패션의 절충 형태는 소재와 디자인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였고 패션에 있어서 다양성을 창조하였다. 위홀의 패션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하이패션이 지녔던 고급취향을 파괴해 '대중성'과 '상업성'을 가미시켰다는 점이다. [그림 4]는 물질문명의 상징인 화폐(달러)의 이미지를 실크스크린한 위홀의 1982년도 작품을 티셔츠의 도안으로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20세기 후반의 거리패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팝 이미지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개인적인 것을 대중적인 것으로 형상화시켜 현대 인간의 감수성을 의식화시켰는데<sup>1)</sup>, 이것은 기호, 문자, 숫자, 지도와 그래피티 등의 기법을 표현수단으로 빈번히 사용했으며, 특히 그래피티(graffiti)와 레터링(lettering)은 60년대 이후 패션 디자인의 주요 모티브가 되었다. 그래피티 기법은 장 미셸 바스



[그림 4] Andy Warhol, Dollar Sign handkerchiefs & tuxedo, [The Warhol Look], p. 13



[그림 5] Jean-Michel basquiat, Motorcycle jacket, [The Warhol Look], p. 9

키아(Jean-Michel Basquiat), 케이스 하링(Keith Haring)에 의해 대표되고<sup>2)</sup>, 위홀의 작품과 함께 현대패션에 많이 반영된다. [그림 5]는 바스키아의 그래피티 작품을 모토싸이클(motorcycle) 재킷에 응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가죽소재의 사용등 거리패션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1960, 70년대의 저항문화는 1990년대에 와서 새롭게 편성, 리믹스되어 적용되었는데 [그림 6]은 1960년대의 히피(hippy)이미지가 1990년대에 새롭게 평



[그림 6] Dolce & Gabbana, 1993, S/S Collection, [Street Style], 1994, p. 66



[그림 7] Robert Rauschenberg, Necktie Shirt, [The Warhol Look], p. 6

가되어 패션에 표현된 것으로 과도한 장식과 패치 워크(patch-work)의 기법이 보여진다. [그림 7]은 남성복 요소인 넥타이와 여성복 아이템인 스커트를 합성시켜 표현한 작품으로 성적인 절충 및 거리패션 아이템인 진재킷과 정장 아이템인 넥타이의 조화를 통해 문화적 절충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 3. 대중매체와 패션

앤디 워홀은 대량생산과 반복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전통미술이 지녔던 특수성이나 귀족주의를 완전히 보편화, 민주화시켰다. 이것은 통속적이고 일상적인 오브제를 작품제작에 활용하였고 할리우드 스타들의 특수성을 보편화시켰다. 또한 예술에 상업성을 결합시켜 비즈니스 아트(Business Art)를 주장하였다.

1960년대 워홀은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 브리짓 바르도(Brigitte Bardot) 등 잡지나 팜플렛을 통해 수집하던 스타들의 모습을 그들이 참석하는 파티나 일상의 활동들에서 사진으로 수집했고,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의 성스러운 이미지들을 선택해 작업했다<sup>10)</sup>. 그는 그레타 가르보의 눈과 소피아 로렌(Sophia Loren)의 입술 등 영화배우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합하는 영화배우 콜라주를 통해서



[그림 8] Giani Versace, Marilyn Dress, 1991, S/S Collection, [The Warhol Look], p. 51

인간 변용의 가능성을 실험하기도 했다.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1962년에 그는 '25색의 마릴린(25 Colors Marilyns)'을 만들었고 이것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sup>11)</sup>. 또 그는 마릴린 이외에도 당대의 유명 스타인 리즈 테일러(Liz Taylor)역시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나타내었다. 그가 표현한 스타들의 실크스크린 작업들은 단순성과 반복성으로 인해 이전의 스타들이 지녔던 특수성을 파괴함으로써 스타가 아닌 단순한 작품소재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그림 8]은 지아니 베르사체의 1991 S/S 컬렉션에서 '마릴린 드레스(Marilyn's dress)'라는 주제로 워홀 작품이 드레스의 프린트에 반영된 것이다.

그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기성의 오브제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진이나 반복화에서 복제기술을 사용하여 프린트 미디어의 반복적 특성을 화면에 옮겨 놓았다. 그는 평범성의 의미를 뒤집어 사용하였는데, '평범한 것은 특수한 것으로, 특수한 것은 평범하게' 고유의 의미를 전도시켰다. 그는 대량생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대량생산 자체가 워홀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복제와 반복의 흐름을 일회적인 화면이나 제한된 시리즈로 정지시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을 일회에 한정시킴으로서 전통적인 작품제작기법과 재생산기법의 기술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워홀은 전통적인 회화제작기법에 사진을 합성하



여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을 절충하였다. 워홀의 '플라워(Flower)'는 흑색이나 녹색의 사진배경에 화려한 색상의 큰 꽃잎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배경과 색채가 주는 불협화음을 통해 사진과 회화와의 보충적 관계를 의도하였다. 1970년대 초에 패션 디자이너 할스톤(Halston)은 워홀의 '플라워(Flower)' 인쇄물에 기초한 의상을 제작해 스프라우스(Sprouse)와 함께 콜렉션을 개최하였고, 그리고 '레이디 앤 젠틀맨'은 초상화를 사진과 합성해 표현한 작품이다. 기존의 회화를 패션에 표현하는 방식은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도 응용되어 나타난다. [그림 9]는 보티첼리(Botticelli)의 '비너스의 탄생'이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어 모자이크로 재구성된 작품으로 기존의 회화를 패션의 패턴으로 사용하고 있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Gabbana)의 작품이다.



[그림 10] Andy Warhol, Brillo Box Dress Fragile Dress, [The Warhol Look], p. 1



[그림 9] Dolce & Gabbana, [Harper's Babbzar Italian Collezioni], N. 191, p. 156



[그림 11] J. C. de Castelbajac, [패션 디자인 발상 트레이닝1], p. 27

그의 패션의 규칙을 깬 기묘한 형태나 소재, 대담한 색채, 기능의 전도, 위치의 전도 등은 패션에 유희성을 제공한다. 워홀은 SH 초록색 우표(SH Green Stamps), 프레질(Fragile), 브릴로(Brillo) 등의 이미지에 기초한 작품을 패션에 응용하였는데[그

림 10] 이것은 마치 인간이 이러한 일상용품들 안에 갇혀서 소외된 듯한 존재적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캠펬(Compbell) 깡통과 모택동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 실크스크린으로 형상화한 작품<sup>20)</sup>을 기초로 제작한 의상도 비비안 탬(Vivienne

Tam)에 의해 선보여졌다. [그림 11]은 까스텔바작(J. C. Castelbajac)의 디자인으로 그림엽서가 비닐에 싸여 제작된 레인코트로, 생활주변의 일상소재와 패션이 절충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절충주의적 경향을 성, 문화, 지역, 역사로 분류해 고찰하였고, 특히 앤디 워홀 룩(Andy Warhol Look)을 성, 문화, 대중매체로 분류하여 패션과의 연관성을 파악, 여기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을 고찰하였다.

현대패션은 대립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수용해 시간적, 공간적인 절충과 초월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고와 노스텔지어, 남녀성의 혼합,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들을 혼합 절충시키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패션에서는 남성, 여성이라는 양분화 현상보다는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을 혼합하거나, 각각의 요소들을 반대 성에 차용함으로써 성적인 차별을 중시했던 기존의 패션관념을 일탈하고자 했다. 이것은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도모하려한 '휴머니즘'적 경향이라 하겠다. 문화적 절충은 거리패션과 하이패션의 절충형태로 이러한 요소들의 혼합과 절충은 정해진 틀에서 탈피한 보다 다원화된 방식으로 패션에 있어서 소재와 디자인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즐거움과 유희성을 제공한다. 지역적 절충은 서구문화 중심이던 패션체계를 벗어난 다양한 문화적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절충, 각 지역요소들간의 절충, 자연과 테크놀리지의 융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콜로지, 이국취향, 에스닉 룩 등으로 패션에 표현되고 있다. 역사적 절충은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과거의 단순한 답습이나 모방이 아닌 과거의 요소를 차용해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이를 현대적 요소나 사회적 환경들과 조화롭게 절충시킨 프리미티브 룩(Primitive Look), 레트로 룩(Retro Look) 혹

은 리바이벌 패션(Revival Fashion)으로 나타난다.

워홀 룩에 나타난 다양성과 절충성은 20세기 후반의 복잡다단한 사회 문화적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워홀 룩에 나타난 성적 절충주의적 경향은 남녀성을 통합시킨 앤드로지너스적인 경향이다. 이런 앤드로지너스적 경향은 표현의 풍부성과 모호성을 제공한다. 여성스러운 남성의 이미지에 대한 흥미로 여장, 게이, 동성애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1960년대 반문화가 형성한 성적 고정관념의 탈피에 동조해 유니섹스 룩인 진과 티셔츠를 즐겨 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적, 문화적 절충형태를 동시에 이끌어 내었다.

워홀 룩은 고급과 저급이라는 기존의 선형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여 비편향적 예술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하층(drop city) 미학을 반향시켰다. 뉴 웨이브 패션으로 나타난 하이패션과 거리패션의 절충형태는 소재와 디자인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였고 패션에 있어서 다양성을 창조하였다. 워홀의 패션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하이패션이 지녔던 고급취향을 파괴해 '대중성'과 '상업성'을 가미시켰다는 점이다.

앤디 워홀은 대량생산과 반복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전통미술이 지녔던 특수성이나 귀족주의를 완전히 보편화, 민주화시켰다. 이것은 통속적이고 일상적인 오브제를 작품제작에 활용하였고 헐리우드 스타들의 특수성을 보편화시켰다. 또한 예술에 상업성을 결합시켜 비즈니스 아트(Business Art)를 주장하였다. 그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기성의 오브제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진이나 반복화에서 복제 기술을 사용하여 프린트 미디어의 반복적 특성을 화면에 옮겨 놓았다. 그는 평범성의 의미를 뒤집어 사용하였는데, '평범한 것은 특수한 것으로, 특수한 것은 평범하게' 고유의 의미를 전도시켰다.

워홀 룩은 다양하고 거대한 문화영역들간의 융합으로 이루어 졌으며, 범주에 대한 편견없이 예술, 패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데 공헌하였다. '워홀 룩(Warhol Look)'은 대중성과 상업성이 어떻게 고급 예술과 관련을 맺고 현재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범성, 대중성, 상업성, 모호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20세기 후반 패션의 절충주의적 경향은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의 시작과 세기말적 분위기에 편승해 복잡다단한 사회 문화적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기간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1) 안홍구,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0, p. 21.
- 2) Charles Jenkes, What is Post-Modernism, 도서출판 청람, 1995. pp. 11-12.
- 3) 임영방,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건축에 있어서의 다의성과 절충주의, 예술과 문화, 1993, p. 26.
- 4) John A. Walker, art in thw Age of Mass Media, 정잔국 역, 열화당, 1997. p. 39.
- 5) 서범석, 포스트모던 광고의 이해, 한국광고, 1994. p. 52.
- 6) 고윤진, 영화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0. p. 36
- 7) 최숙희, TV광고에 반영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 5.
- 8) 이화자, 신세대 시장의 마케팅적 의의와 광고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pp. 78-79.
- 9)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5. pp. 1-3.
- 10) 안종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성문화 이야기-AIDS, X-화일, 학민사, 1996. p. 15.
- 11) 허정난,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p. 46.
- 12)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p. 81.
- 13) 김영자,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p. 58-59.
- 14) Mark Francis & margery King, The Warhol Look, Bulfinch Awm, 1997. pp. 11-13, p. 186.
- 15) Richard Martin 외 6명, The Warhol Glamour Style: Fashion Illumination, new York, Bulfinch Press Book, 1997. pp. 25-28.
- 16) 이의정,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8. pp. 71-76.
- 17) Babra Rose, American Art since 1900, 1975.
- 18) 김주영 · 이정후 ·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그라피티 기법에 관한 연구, 1997. 복식 제5권 3호. pp. 129-130.
- 19) 인터넷 자료. Warhol Museum. 1997. <http://johnson64.simplent.com/warhol>
- 20) 호암갤러리 'Andy warhol' 전시 참고 도록집, 팝아트의 슈퍼스타 앤디 워홀, 1994. p. 15.